

남성들이 선호하는 주거환경

- 여가생활환경을 중심으로 -

윤 영 선(극동정보대학 교수)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도입된 주5일 근무제의 확대로 여가활동시간이 증가되고, 삶의 중심축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일에서 개인생활로 전환되고 있는데 비하여, 실제 여가내용은 수동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여가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대상으로 주요한 관심을 끌지 않은 남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여가생활특성과 여가활동공간을 조사한 것은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일상권내 여가환경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2. 조사결과 및 결론

조사대상자는 공동주택거주자로서 남, 여 모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에 대하여 성별비교분석을 하였다. 연령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3,109,600원(2005년 8월, 통계청)이므로 소득별로 비교적 고르게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1).

남, 여(20대가 70%이상인 여성 직장인) 모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성별과 나이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는 그룹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의 결혼상태여부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해석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사노동과 가족행사 등으로 보내는 시간이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측면에서 주거환경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거주지역간 차이도 예상되므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설문문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사대상자들은 주5일제로 인하여 과거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고, 원하고 있으며, 집근처 근거리권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거주생활권내 다양한 여가공간 확충이 당면과제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여가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남성들은 가족결속력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친목도모 및 활력증진, 건강증진 및 일의 능률향상 순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의 배경에서 제시한 일과 여가의 분리, 가정중심축 중시의 사회적인 경향과 일치하는 타당성 있는 연구결과이다.

여가공간의 위치체계에 대한 조사결과는 본 연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여가환경 조성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주중, 주말 모두 현재와 비교해서 앞으로 원하는 여가공간이 집에서 줄어든 것에 비하여 집근처 동네에서 하는 여가활동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회사에서 하기를 원하는 여가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유추해석하면, 현재는 TV보기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가활동을 주로 집에서 해왔다면,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근거리권에서 하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표9>에서 제시된 여가활동장소 선택이유에서 “근거리 이용이 가능해서”와 “교통이 편리해서”를 유사항목으로 묶어서 볼 때, 응답자의 50%이상이 지적한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과거보다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집에 대한 근접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와 선호측면을 비교하면, 조사대상자들이 여가활동장소를 선택할 때 미래에는 가깝고, 시설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특징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타항목이 비교적 많이 지적되었으므로 기타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가활동공간과/시설의 위치 파악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공간이 집에 가깝게 위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본 토론원고의 전반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여부와 나이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시설위치에 대한 거리척도에서 “집에서 걸어서 30분 이내”와 “집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는 응답자가 인지하기에 애매한 거리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걸어서 5분 거리이지만, 도로 위 차량증가로 인하여 차량으로는 10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공동주택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생활권내 여가환경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이므로 집에서 걸어서 30분 이내는 “단지내”로 하면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2>에서 제시된 여가활동의 종류와 공간의 위치는 주거지역 내 여가환경조성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명확한 연구결과이다. 단, 주거단지는 다양한 생활주기의 가정과 아동, 청소년, 노년층이 함께 거주하는 장소이므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집단의 여가욕구를 파악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